

신인철학의 인간에 대한 견해형성발전의 사상리론적전제

림수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사물의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두면을 가지고있습니다. 계승과 혁신의 어느 한면만을 보는것은 형이상학적관점입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1권 366페이지)

새로운 사상은 선행시기의 사상리론들을 계승하고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형성된다. 선행한 사상과 아무런 련관이 없이 나온 사상리론이란 있을수 없다.

신인철학의 인간에 대한 견해는 동학의 인간에 대한 견해를 리론적원천으로 하여 형성발전되였다.

동학에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자연에 대한 견해와 사회에 대한 견해는 물론 종교적인 내용과도 떼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사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전개한것은 동학이 종래의 다른 철학사상조류와 구별되는 기본특징의 하나이다.

동학에서 사람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한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있던 봉건적인 폭압과 예속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것이 절박한 사회적요구로 나선것과 관련되어있으며 유교, 불교, 카톨릭교 등에 의한 정신적구속과 유교성리학에 대한 맹목적인 교조로부터 사람들의 리성을 해방하는 문제가 무시할수 없는 요구로 나선것과 관련되어있다.

동학에서는 당대의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말세기적인것으로 된 원인을 인간본성의 타락에서 찾았으며 여기로부터 사람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사람의 발생근원, 사람의 본성과 관련되는 견해들을 일정하게 내놓았다.

최제우는 사람의 발생원인을 사람이 초자연적인 《창조신》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 종교목적론적견해와 같이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최제우는 사람도 세계의 시원인 《지기》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천지만물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치는 우주자연의 변화발전과정에 생겨난것으로 리해하였다.

최제우는 사람의 발생근원을 천지만물과 같은 기화(기의 변화)로 인정하였으나 사람을 결코 천지만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발전수준에 있어서 우주자연의 변화과정의 제일 마지막단계에 있는것으로 보았으며 천지만물가운데 무엇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하였다. 최제우는 이에 대하여 《룡담유사》에서 《천지음양 조판후에/백천만물 화해나서/지우자 금수요/최령자 사람이라》(《도덕가》)라고 하였으며 《동경대전》에서는 《음양이 서로 조화되어 비록 백천만물이 변화발생하였으나 그가운데 홀로 오직 사람만이 가장 신령한것이다.》(《론학문》)라고 하였다. 최시형도 만물은 기로부터 생겨나고 사람은 오행의 뛰어난 기라고 하였다.

최제우의 글들에는 물론 《하늘, 땅, 사람은 세 뛰어난 존재》(《동경대전》론학문)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나 사람에 대한 최제우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보면 《만물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가장 신령스럽다.》(《룡담유사》안심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하늘, 땅, 사

람이 세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것도 사람이 다른 물질적존재에 비하여 우수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것이였다.

사람에 대한 최제우의 견해는 극히 소박하고 직관적인 견해였으며 신비적인 성격을 띠었다.

사람이 세상만물가운데 제일 뛰어나고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최제우의 견해는 《인내천(사람이 곧 한울)》사상으로 체계화되였다.

《인내천》사상은 세계와 사람, 그 호상관계에 대한 견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며 동학의 근본리념, 취지로 되는 사상이다.

《인내천》사상은 최제우가 《주문》과 《론학문》에서 《시천주》, 《오심 즉 여심(내 마음이자 곧 네 마음)》, 《천심 즉 인심(한울님의 마음이자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데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최제우는 《주문》에서 《시천주》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론학문》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이함으로써 《인내천》에 관한 사상을 동학의 기본취지로 선포하였다.

최제우가 내놓은 《시천주》사상은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있다.》는 사상이다. 최제우는 《시라는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사람이 각각 다르지 않음을 아는것이다.》(《동경대전》 론학문)라고 하였다. 최제우에 의하면 《모신다》는것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다는것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김없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것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몸에 《신령》을 지니고있는데 《신령》은 내적인것이고 육체적인 몸은 외형조직이라는것이다.

최제우가 말한 《신령》이란 곧 《한울님》을 말한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있으며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있으므로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인정하였다.

《인내천》사상은 자연에 대한 최제우의 범신론적견해와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자연에 대한 동학의 범신론적견해의 기본특징을 나타내는 사상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최제우의 견해는 범신론적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인내천》사상으로 나타난 최제우의 범신론적견해는 일반적으로 리해된 범신론적견해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인내천》사상이 범신론과 구별되는 특징은 사람이 천지만물가운데서 가장 신령스럽고 발전된 존재라고 보는것이다.

《인내천》사상은 범신론적성격을 띠면서도 우주자연의 변화발전을 인정하며 사람을 천지만물가운데서 무엇보다 발전되고 우수한 존재로 본다. 《인내천》에 관한 사상은 사람을 전지전능한 《한울님》의 지위에 올려놓고 사람밖의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한 《인격신》에 의한 사람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내천》사상에 의하면 사람밖의 《한울님》의 조화력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곧 《한울님》의 조화력으로 된다.

《인내천》사상에서 말하는 《한울님》은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한 《인격신》이 아니라 우주자연에서의 사람의 우수성, 신령성을 표현하는것이였다.

동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견해도 제기하였다.

최제우는 사람의 본성을 《덕》으로 보았다. 그는 《주문》에서 사람은 《한울님》의 령기를 모시여 저절로 덕에 합하고 마음이 정해졌다고 하였으며 다른 글에서는 《덕은 곧 천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최제우가 사람의 본성을 《덕》으로 리해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동학의 견해가 아직 사람의 본성을 료리도덕적인 면에서

론의하던 종래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실 최제우는 사람들을 도덕성의 발현정도, 수양정도에 따라 성인, 군자, 소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그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문제에서 종래의 유교성리학적인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동학의 《인내천》사상에는 사람의 본성을 평등성으로 보려는 요소도 내포되어있다.

동학에서 《인내천》이라고 할 때의 사람은 개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인간을 의미하며 사람에 대한 형상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자체를 넘두에 둔것이였다. 또한 이것은 평등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자체가 본래 평등하다고 하는 사람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것이였다.

동학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엄있게 대할데 대한 《사인여천》의 사상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인내천》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사람에 대한 최제우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인성무궁》에 관한 사상이다. 최제우는 사람이 원래 시간적으로 무궁하다고 하는 《인성무궁》에 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동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무궁한것은 사람이 천지만물가운데 하나이며 우주자연의 변화과정에 우주를 대표하는 존재로 발생한것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였다. 최제우에 의하면 사람이 우주자연을 대표한것만큼 사람의 근본시원은 곧 우주자연, 천지만물의 시원으로 된다. 그런데 전체로서의 우주자연, 천지만물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기때문에 사람은 무궁한 우주가운데 무궁한 존재로 된다.

최제우는 사람이 우주자연과 통일되어있으며 천지만물의 시원인 《지기》의 무시무종하고 무한한 신령성을 가지고있다고 인정하였다. 최제우에 의하면 《지기》의 신령성은 천지만물로 나타나며 천지만물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사람은 우주자연과 함께 무궁하게 존재한다.

사람에 대한 동학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사람의 활동의 《무위이화》적성격에 관한 사상이다.

최제우는 자연계의 운동이 《무위이화》할뿐아니라 사람의 활동도 《무위이화》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았다.

《무위이화》는 사물이 자기 본능에 따라 저절로 운동변화하는것, 보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만물의 시원인 《지기》의 본성에 따라 운동변화하는것을 말한다. 최제우는 사람도 역시 《지기》의 《무위이화》의 법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제우는 사람의 활동은 자연계의 운동 다시말하여 자연계의 《무위이화》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최제우에 의하면 자연계의 《무위이화》는 자연의 본능에 따르는 《무위이화》이지만 사람의 활동은 사람의 본성에 따르는 《무위이화》이다. 최제우는 이것을 특징지어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 그 선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 한가운데 되는것이다.》(《동경대전》론학문)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무위이화》가 자연에서의 《무위이화》와는 달리 사람자신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한 《무위이화》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의 《무위이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사회의 법칙에 순응하고 인간사회를 조화시키며(리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것) 향상케 하는 《무위이화》이다. 이것이

모든것을 저절로 되어가는대로 버려둘데 대한 로자의 소극적인 《무위자연》과 구별되는 최제우의 적극적인 《무위이화》이다.

최제우가 제기한 사람의 활동의 《무위이화》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렇게나 되어가는대로 버려두는 방임주의적인 《무위이화》가 아니며 순수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연계의 《무위이화》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에 따르고 사람의 도덕적본성을 그대로 자유롭게 적극 조장발전시키는 《무위이화》이다.

사람에 대한 최제우의 견해는 물론 비과학적인것이였다. 최제우는 사람의 발생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람의 본성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료리적속성으로 이해하였다.

신인철학은 동학의 사람에 대한 견해를 리론적전제로 하여 인간관을 전개하였다.

신인철학이 동학의 사람에 대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사람이 한울과 같이 귀하고 자유로우며 누구나 다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견해를 내놓은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신인철학은 사람의 발생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을 자연적인 속성으로 보며 인간평등, 인간존중의 실현방도도 옳게 밝히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